

# 납본제도, 시대에 맞게 탈바꿈해야

## 법규 일원화, 보상금 현실화 등 개선 시급

납본 업무를 전담하는 국립중앙도서관 납본과에서는 연례행사로 납본안내 홍보문을 언론사 및 유관기관에 띄운다. 이 '자료제출 안내문'은 납본의 법적 규정과 의의, 제출대상자료, 제출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안내문 게재를 바라는 협조 요청서에는 "일부 발행·제작사의 납본제도에 관한 이해부족으로 자료제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자료 납본 수집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문안이 보인다. 다음에 우리나라 납본제도의 운영실태를 살펴봄으로써 그 개선책을 모색해 본다.

### 세 갈래로 나뉘어 있는 납본체계

납본이란 "출판인이나 저작자가 출판된 출판물을 법이 정한 테두리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지정된 기관에 제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회도서관법'에 납본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두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통해 납본 절차를 명문화하고 있다.

법규에 따라 납본을 받는 기관도 각각 다르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7조 1항은 "도서·정기간행물·음반·비디오물·기타

### 납본 제도의

#### 개선방안은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납본의 일원화이고,

둘째는 납본 보상금의

현실화다. 매우 중요한

문화적 현안임에도 일반의

관심 밖에 있는 납본제에

관한 모든 것을 재검토,

탈바꿈시켜야 할 때다.

대통령이 정하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국립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료 2부를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제4조 1항에 명시한 다음, 동 법률 시행령에 제출기한을 15일 이내로 밝혀 놓았다. '국회도서관법'의 납본조항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정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제한하고 있다. 어린이



납본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납본실.

책·학습서·만화·순수과학기술서 등은 납본을 받지 않고 있다.

세 기관 모두 보상료는 정가의 50%를 주고 있는데, 문화체육부의 경우는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2만원이 넘는 책은 보상을 하지 않는다. 국립중앙도서관과 문화체육부에서는 분기별로 납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국회도서관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준다. 문화체육부의 올 1/4 분기 납본보상금은 37,730,650원이다. 4,871종 9,742책에

대해서 정가의 50%를 지불했다.

납본 업무는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대행하고 있다. 문화체육부 납본은 1962년(당시 문화공보부)부터,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은 각각 64년과 65년에 출협에 대행 업무를 맡겼다. 출협 납본과의 이순덕씨는 "출판사들은 성실하게 납본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기업체, 연구소의 간행물은 납본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 프리즘

## 불황이 기회다

### 대형기획·신간발행 줄어... 질 높은 독자 겨냥해야

책이 없다. 지난해 2만6천여종의 신간을 발간하고 1조 6천억원에 달하는 시장규모로 세계 7위의 출판대국으로 우뚝선 우리나라에 책이 없다니 웬 어불성설. 대형서점, 동네서점, 대여점, 할인매장, 리어카 등 구석구석 책들이 넘쳐나는데 말이다. 그러나 책이 없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책이 만나온다. 참신하고 독특한 기획으로 독자들을 이끌고, 우리 사회의 문화적·지적 자산의 두께를 더할 만한 책, 출간됐다는 것 자체가 광고가 되는 그런 책을 만나기가 힘들다.

신간 발행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 한국출

판정보통신이 집계한 신간발행량 추이를 보면, 그나마 인기가 있는 문예물만 봐도 국내 소설이 지난해 12월 194종이었던 데 비해 4월에는 91종, 외국소설은 92종에서 53종으로, 수필도 73종에서 37종으로 감소했다.

소설·명상서·소프트한 역사서와 돈벌이 지침서들을 빼면 이렇다 할 신간이 없다. 신간 발행량 자체가 줄어든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4~5월은 비수기인데다 우리 사회 전체를 움츠러들게 하는 경기불황이 출판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굵직한 도매서점인 천안 동방서점의 예상치 못한 부도 등,

최근 2년 가량 7~8개에 이르는 대형 도매상의 부도도 영세한 출판사들의 목을 쥔 요소다. 반품은 늘고 광고비 부담은 가중된다. 그나마 간접 광고효과라도 있던 신문의 출판면은 축소되는 양상이고, 한보사태에 대선자금 문제 등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대형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니 서점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자연 뜸해질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베스트 10에 들어가면 하루 주문량이 평균 4000부는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하루에 1500부밖에 주문이 안들어 온다"는 한 출판인의 말이다. "3월부터 매출이 표나게 떨어지고 있다. 전년대비 약 20~30%가 준 것 같다"는 서울 시내 한 대형서점 관계자의 말은 모두 최근의 사정을 말해준다.

"힘들여 만들어 봐야 책이 만나간다. 신간 발행 자체를 포기하거나 뒤로 미룬다. 대형

기획보다는 단발성 책들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 대부분 출판사들의 처지이고 보면 최근의 볼거리 없고 맥빠진 신간목록의 모양새가 측은하기조차 하다.

그러나 "불황은 진정한 의미의 독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이 시기에 서점을 찾고 책을 읽는 독자들이야말로 '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가진 사람이라 볼 수 있다"는 을지서적 홍보과 이동빈 계장의 분석은 눈을 번쩍 뜨이게 한다.

불황이야말로 기획력이 빛을 발할 때다. 질 높은 독자들이 여전히 서점을 드나들며 읽을거리를 탐색하고, 그렇게 선택된 책들이 입에서 입으로 '선전'되어 팔려나가는 일. 불황이야말로 책 만드는 사람이 순진하고도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

— 박남정 기자

납본은 출판 통계와 직결돼 있다. 납본된 책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출판총목록》같은 '국가서지'를 작성하기 때문이다. 더욱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서라도 납본제도의 허술한 측면을 개선하는 것이 마땅한지만, 주무 부서인 국립중앙도서관 납본과는 뒷집을 지고 있는 형편이다. 중개자를 통해 납본을 받기 때문에 중개자가 보내는 책만으로 사안을 마무리하는 행정편의주의가 만연해 있는 것이다. 일찍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서울신문의 이중한 논설위원은 "주면 받고 안주면 그만이라는 태도와, 그저 왜 공짜로 책을 여러 곳에 쥐야 하느냐는 태도의 만남이 납본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주면 받고 안주면 그만

저작권과 연계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소득도 없고, 80년대 후반까지 도서검열제도로 악용된 전력이 있던 터라 납본제도의 본뜻은 인정하면서도 양금을 갖고 있는 출판인들이 적지 않다. 벌금 부과 문제는 여전히 구태의연함을 보여준다. 실천문학사는 지난

해 신간 몇권을 기한을 넘겨 한꺼번에 납본했으나 벌금이 부과된 것은 《은행나무 사랑》뿐이었다. 출판사는 저자가 물의를 일으킨 김하기씨인 까닭에 감정적인 처사가 아니냐는 얘기다.

납본 문제를 다룬 연구자와 출판인들이 바라는 제도 개선 방안은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가 납본제도의 일원화이다. 국가대표도서관이 2개 존재하는 도서관 행정의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하고, 관련 부서 사이의 할거주의에도 원인이 있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문화체육부의 납본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둘째는 납본 보상금의 현실화. 전액 보상이 어렵다면, 적어도 정가의 70% 정도는 해야 한다는 것이 출판인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납본제도는 매우 중요한 문화적 현안임에도 일반의 관심 밖에 있다. 납본제도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로 탈바꿈시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 최성일 기자

## 세계 여러나라의 납본제도

세계 여러나라는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 독특한 납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본을 부과하는 근거와 운용 방식은 다르지만, 짝지 않은 변천과정을 통해 역사적 당위성과 사회성을 얻고 있다.

프랑스는 납본제도를 최초로 실시한 국가로 납본법에 규정을 상세하게 밝혀 놓았다. 인쇄물은 반드시 납본을 해야 하고, 납본부수도 많다. 제작자가 2부, 출판인이 5부를 해당기관에 무료로 납본해야 한다. 납본을 하지 않았을 경우, 1천~1만5천 프랑의 벌금을 물고, 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가중 부과한다.

미국은 저작권과 연계해 납본제도를 운영한다. 의회도서관 저작권 등록청에 완전본 2부를 무상으로 납본하면, 저작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납본을 하지 않으면 저작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저작권 등록청은 저

작권 소유자에게 납본을 요구할 수 있고, 기한(국내 3개월, 국외 6개월)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1백달러를 물린다.

역시 저작권과 연계돼 있는 영국 납본제도의 또다른 특징은 여러 곳에서 납본을 받는다는 점이다. 출판업자는 출간 한달 안에 자비로 1부를 대영도서관에 납본해야 한다. 옥스퍼드대학 도서관·캠브리지대학 도서관·보들리 도서관·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트리니티대학 도서관·웨일즈 국립도서관 등 6개 도서관에 대해서는 1년 안에 요청이 있으면 납본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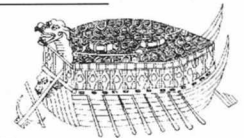
독일과 일본은 도서관법으로 납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대행기관을 통해 납본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출판도매협회가 일괄 납본수속을 맡고 있고, 실무는 동경출판판매와 일본출판판매가 나눠 맡고 있다. <최성일>

거꾸로 읽으면  
똑바로 보인다!

DOOSAN  
독산동아  
TEL: 853-5608  
http://www.dong-a.com

누군가 찾아야 할 독도맞은 우리 역사

# 한반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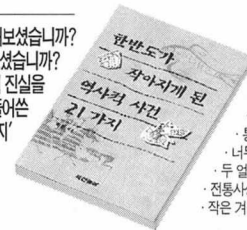
# 작아지게 된

# 역사적 사건

# 21가지



우리 땅은 한반도가 아니라 생각, 해보셨습니까?  
삼국통일이 통일이 아니라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몰랐던 우리역사의 진실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미있고 쉽게 풀어쓴  
'한반도가 작아지게 된 역사적 사건 21가지'  
한국사, 이젠 거꾸로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부터 밝혀드립니다.



거시적 안목으로 흥미진진하게  
풀어낸 수준있는 한국사

- 단군신화는 우리 역사가 작아지게 된 첫 출발점
- 너무나 길었던 삼국시대
- 통일이 아닌 통일, 삼국통일
- 너무 편이한 두 개의 천리장성
- 두 얼굴의 과거제도
- 전통사상에 관한 서적으로만 책 찬 조선의 금서목록
- 작은 거래를 고백하는 까닭 등...

박 현 지음 / 7,000원

술술 읽으면 쑥쑥 들어오게  
풀어쓴 현대철학 이야기

DOOSAN  
독산동아  
TEL: 853-5608  
http://www.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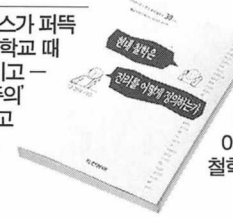
필수 핵심용어 30가지 완벽 정리

## 현대철학은 진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 마르쿠스/잉여가치
- 니체/권력의지
- 프로이트/무의식
- 소쉬르/기표와 기의
- 후설/판단중지
- 레닌/약한 고리
- 융/집단 무의식
- 아인슈타인/상대성
- 케인스/유효수요
- 바슐라르/인식론적 단절
- 루카치/계급의식
- 하이데거/현존재
- 그람시/헤게모니
- 리얼/욕망
- 아도르노/계몽
- 사르트르/자유
- 브로델/장기 지속
- 비트겐슈타인/언어 게임
- 하이젠베르크/불확정성
- 레비스트로스/심층구조
- 바르트/신화
- 알튀세르/이데올로기
- 쿤/패러다임
- 리오타르/포스트모던
- 들뢰즈와 가타리/욕망
- 푸코/지식-권력
- 보드리야르/시뮬라시옹
- 허버마스/의사소통
- 데리다/해체
- 부르디외/아비투스

철학자라면 소크라테스가 퍼뜩 떠오르고, 철학이라면 고등학교 때 배운 상식 수준이고 - 누가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 운운할 때면 중간이나 가려고 침묵을 지키시던 분들을 위해,



현대 철학자 30인의  
철학적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쓴  
현대 철학은 진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  
이 책 한 권이면 당신도  
철학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남 경태 지음 / 6,800원